



1. 머리말

1997년은 전기학회 창립 50주년이며, 동시에 이 나라에서 전기가 사용된지 110년이 되는 해이다. 1987년 1월 26일에는 건청궁(현재의 경복궁)에 전등불이 켜짐으로써 한반도에 전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대한전기학회는 1947년 7월 9일에 창설되었다.

이 기사는 『전기학회 50년사』의 「제2장 대한전기학회 50년 역사의 개관」의 집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 학회의 창립

대한전기학회는 1947년 7월 9일 조선전기학회로 창립되어, 1949년 대한전기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1997년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의 연륜을 더하여 왔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밀려온 기쁨과 기대, 혼란과 격동의 틈바구니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에 뜻을 모은 50 여명의 기술인의 발기에 따라 조선공업기술협회가, 위원장 이강현, 이사장 윤일중 등으로 설립되었다.

1946년 8월, 이 협회는 조선기술총연맹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기술 분야별 부회의 하나로서 전기부회(초대 부장 윤일중)가 설치되었다. 1946년 11월, 전기부회는 해체되고, 조선전기기술협회(회장 윤일중)가 독립 단체로 설립되었다.

해방의 혼돈 속에서, 심각하였던 정치적 상황과 좌익우익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예외 없이 조선전기기술협회에도 밀어닥쳤다. 즉, 미소공동위원회의 대표 파견을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이 생긴 것을 계기로, 1947년 3월, 정치 문제에 초연한 우익 인사들이 협회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1947년 7월 9일, 탈퇴한 간부 인사 20 여명은 새로이 조선전기학회를 경성전기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창립하였고, 초대 회장에 윤일중, 부회장에 권이현 등이었다. 조선전기학회의 창립에 참여하였던 20여명의 인사는, 윤일중, 김중수, 석만기, 염도유, 권이현, 송용근, 서석인, 이태환, 이종일, 이백규, 이춘수, 김재신, 김준식, 정진석, 박창배 등 여러분이었다.

조선전기학회는 전기 기술의 발전에만 전념하는 이 분야 유일의 학술단체로서 전통을 세워 나갔고, 학회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조선전기기술협회는 좌익 정치단체화하여 한국전쟁 중에 자멸하고 말았다.

1949년 10월 1일, 학회의 학회지가 『전기공학 전기학회지』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다. 창간호의 권두사에서 윤일중 학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감격을 안고, “우리는 국초확립(國礎確立)과 민족번영(民族繁榮)에 쇄신(碎身)하여 대업완수(大業完遂)의 절대책무(絕對責務)가 부하(負荷)되었도다”라고 선언하면서, “본지는 때로는 학자 기술자 제위의 연구 발표 기관도 되고 때로는 종업자 각위의 대사회적 대국가적 제언의 대행도 하여서 사계(斯界)발전과 향상에 부하된 사명을 완수코자 하노니...”라고 학회지의 성격을 정의하고, 학회지가 전기 공학의 학술과 그 실용 기술에 기여할 사명을 다짐하였다.

1949년 3월 5일, 학회의 이름을 조선전기학회로부터 대한전기학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학회 제1기(1947년~1956년)의 역사

학회의 제1기의 시작 연도는 1947년이었다. 제1기는, 1945년의 광복 이후 1947년에 미군정이 종식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7년에 학회가 발족하였고, 1950년에서 1953년에 걸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그리고 휴전과 더불어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하여 전화를 복구하던 시대에 해당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려는 의욕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과 좌우익의 투쟁, 그리고 오랜 일제의 수탈과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이 가져온 경제적인 공백 상태, 미국의 군정 체제에서 온전한 행정 체제를 갖추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에 조선전기학회가 창립되었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측의 송전 중단 행위로 말미암아, 전력의 상당량을 북한측의 송전에 의존하던 남한측으로서 는 일상 생활의 불편은 물론 산업 설비의 가동에 생긴 지장을 견디어야 하였다. 이 시기에 전기 산업 분야에 종사 또는 관여하던 인사들과 기관 및 회사들이 참여하여 이룩한 학회는 전기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당장 다급한 전력 부족의 문제를 풀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함께 짊어져야 하였다.

1948년 10월, 학회는 1948년 5월 14일 북한측 무단 단전으로 빚어진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의 하나로, 영월 화력발전소의 수리복구공사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시하여, 미국의 기술 고문단, 상공부, 전력회사, 상공회의소 등과 전력문제의 해결을 토의하였다.

또한, 광복 뒤에 가장 긴급하였던 기술 인력의 양성과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11일, 학회는 상공부의 지시를 받아 전기주입기술자 및 공사기술자의 검정 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학회가 설립된지 거의 일년이 지나, 1948년 10월 1일, 학회지, 전기공학 전기학회지가 힘들게 창간되었다. 이로써 학회의 성장과 활동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기관지의 면모를 갖추었을뿐 아니라 새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전기 학술인, 기술인의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창간호의 권두사에서, 윤일중 학회장은 8월 15일 독립선언식(광복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생생한 감격을 토로하면서, 『전기(電氣)는 만물(萬物)의 근(根)이요 제행(諸行)의 역(力)』이라는 경구로써 전기 공학의 학문적 중요성 및 그 응용의 산업적 기여를 강조하고, 학회지가 학술과 실용의 양쪽에 이바지할 것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던 학회는,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연이은 “한국전쟁”의 사변 발발에 의하여 피난의 길에 들어섰고, 1952년 6월 7일, 부산시에 학회 사무소를, 회원 박흥주 사장의 대한합동건설(주) 안에 설치하여 학회의 활동재개에 힘을 기울였다.

전쟁 도중이었으나, 긴급한 전기 부족을 줄이기 위하여, 1952년 11월 25일에는 수복한 화천수력발전소의 시설 복구, 1953년 전력 계통의 간선인 154kV 남북송전선의 설치 공사의 완공, 등에 학회도 힘을 보태었던 것이다. 또한 기술 인력을 양성 확보하려는 정부의 위촉을 받아, 학회는, 1953년 2월 24일, 『전기사업 주입기술자 자격검정 법안』을 작성하였다.

1953년 9월, 학회는 휴전 성립과 함께 정부가 서울로 환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을지로에 있는 대한합동건설(주)로 사무소를 옮겼다. 그러나 전후 복구의 어려움 때문에 1953년에 화폐개혁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제가 궁핍하였고, 학회도 1954년에 재정난으로 발간을 일시 중단하는 고초를 견디어야 하였다.

1955년 1월 1일, 학회는 사단법인(상공부 상전 제8호) 인가를 받고, 같은 해 3월 31일에 서울 지방법원 제603호로 법인 등기를 마쳤다. 나라의 전후 복구의 사업이 활발하여지는 것과 함께, 학회는 1955년 10월부터 1959년 연말까지, 등사판으로 인쇄한 학회지를 월간으로 발행하여, 학회 소식을 전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학회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4. 학회 제2기(1957년~1966년)의 역사

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1957년은 휴전후 4년째가

되는 해이었다.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전쟁이 남긴 뼈아픈 상실과 상처를 안고 복구작업이 계속되었고, 학회도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발전의 터전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제2기의 10년 동안은 처음 10년 못지않게 격변의 시대였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1945년 광복 직후에 버금가는 제2의 정치적 격변기였던 것이다. 1960년의 4.19의거와 자유당 정부의 종언, 내각책임제아래 9개월 단명의 민주당의 집권, 1961년의 5.16 군사혁명과 국가최고회의의 통치, 공화당 정권의 등장 등으로 이어졌다.

1961년 7월 1일 전력회사들이 통합 국영화되어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62년 6월 10일 화폐 개혁 등 산업 기반의 변화가 또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변혁에 학회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고 변화와 발전의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학회의 사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1957년 12월 18일에는, 김재신 이사의 기증으로 학회 전용 전화를 설치하였다. 1958년 2월 1일, 창조자들의 모금 덕분으로, 대망하던 학회 전용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30번지에 확보하였다. 1960년 3월 12일에 학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1-3으로, 1961년 3월 11일에는 남대문로에 있는 동미빌딩 501호로 이전하였다. 1962년 9월 2일, 이천 전기주식회사의 후의 덕분으로, 학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2-2 이천전기빌딩으로 이전하였다.

학회는 대외적인 활동을 쉼 없이 전개하여, 1957년 8월 14일에, 학회가 한국전쟁 이전부터 추진하여 오던 『전기 공작물 규정안』을 작성하여 상공부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전기기술자 자격검정 법안』을 작성하였다.

1962년도 후반부터 정부기구의 각종 위원회에 학회의 이사가 참가하여, 학회의 존재가 대외적으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1966년 5월 5일, 상공부의 요청을 받아 전기관계 법령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65년 3월 16일, 대한전기협회의 발족에 학회가 참여하여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66년 6월 30일에는, 『전기용어집』을 발행하였다.

1960년 1월 28일, 학회지 『전기공학』 제7집이 복간되었다.

학회지 『전기공학』은 1948년 10월 1일 창간 제1집이 발간된 뒤로, 1954년 4월 10일 제6집으로 끝나고, 『전기학회보』로 이름을 바꾸어 1955년 10월 15일 제1집에서 1959년 4월 26일 제14집까지 발행되었던 것이다. 1962년 6월 7일, 학회지 『전기공학』을 『전기학회지』로 개칭하였다. 1964년부터는 학회지를 매년 4회 발간하였고,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학회지를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학회의 기구도 성장하고 회원도 증가하여, 1961년 6월 7일, 학회 제10차 총회에서, 이사의 정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늘이고, 선출 방법도 일부 변경하여 15명은 직선으로, 10명은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게 하여 폭넓은 이사진의 구성이 가능하게 하였다. 1963년부터는 실무 이사회를 1주일에 1회씩 개최하였다. 1964년 3월 14일, 학회 부회장을 2명으

로, 학회이사 정원을 35명으로 증원, 조사이사과 상임이사 회 제도를 신설, 서무이사를 총무이사로 개칭, 학생회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변천이 있었다. 이어서, 1965년부터는 전기학회학생회 체육대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특기할 것은, 학회 표지(마크)가, 1966년 3월 26일에, 제정된 것이었다.

이 시기(1957년~1966년)에는, 학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학회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증설되었다.

- 1963년 6월 29일, 회원자격심의 위원회 설치.
- 1963년 11월 7일, 전기용어제정 위원회 설치.
- 1965년 6월 5일, 철도전화 연구조사 위원회 설치.
- 1965년 11월 25일, 전기기기 연구조사 위원회 설치.
- 1966년 5월 5일, 전기관계 법령심의 위원회 설치
(상공부의 요청에 따름).

또한, 학회의 회원의 증가와 활동의 확산을 증거하는, 학회 지부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 1963년 12월 7일, 부산지부가 학회 최초의 지부로 설치됨.
- 1965년 5월 29일, 대전지부가 설치됨.

학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노력의 소산물로서, 1963년 11월부터, 전기용어제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노력한 결과,

- 1966년 6월 30일, 『전기용어집』을 발행하였다.
- 1966년 현재의 학회의 규모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 학회지부 2개, 부산지부, 대전지부.
- 연구위원회 2개, 철도전화 연구조사위원회, 전기기기 연구조사위원회.

5. 학회 제3기(1967년~1976년)의 역사

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1967년에는,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중임하게 되었고, 정부는 제1, 2차 5개년계획을 완료하고, 제3차 5개년계획에 착수하는 등 중화학공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나갔다. 제2차 5개년계획이 끝나면서, 전력 계통은 발전 용량 290만kW를 확보하여 전력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학회는 전력계통연구회, 전기재료연구회, 방전 및 고전압 연구회 등으로 학회의 활동이 활발하여졌고,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공업진흥청의 기계류 국산화 및 표준화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1967년 7월 22일, 학회로서는 오랜 세월 바라며 기다려온 명실상부한 학회 사무소를, 신축한 전기인들의 공동의 집인 대한전기협회의 전기회관(중구 수표동 11-4번지, 전기회관 305, 306호실)에 두는 감격을 안았으며, 이것은 학회와 그 회원들에게 창립 20주년의 뜻있는 생일선물이었다.

제3기(1967년~1976년)동안에, 학회 지부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 여러 지역의 발전과 학회의 성장이 병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968년에, 학회에서 3번째로 울산지부가 창립되었고, 다시, 1970년에 대구지부와 전남지부가, 1973년에는 영동지부가, 1975년에는 전북지부가 각각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하여 모두 6개의 지부가 생겼다.

1970년 9월 2~4일, 서울국제전기전자학회(IEEE 학술회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술회의는 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 기술 분야의 공동의 관심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뜻있는 행사이었으며, 80년대 이후의 학술, 기술의 국제적 교류의 본격적인 선례를 남겼다.

학회의 일차적인 활동의 지표인 학술 연구와 발표는 연구위원회규정(1975년1월 31일 시행)에 따라, 1975년에 전기기기연구회를 비롯하여 1976년말까지 4개의 연구회가 생겨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학회의 조사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졌으며, 1971년부터 한국공업규격(KSC 전기 부문)의 규격 제정을 연차적 용역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기기기의 설계기준의 제정의 용역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형식 승인 심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전기기기의 국산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였다.

제3기(1967년~1976년)에는, 학회지를 연간 6회 1500부씩 안정하게 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학회 제정의 안정화, 학회 회원의 활동과 잡지의 편집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1976년말 현재의 학회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학회지부 7개
부산지부(1963.12.7설립), 대전지부(1965.5.29),
울산지부(1968.8.3), 대구지부(1970.10.17),
전남지부(1970.11.7), 영동지부(1973.8.3),
전북지부(1975.8.1).

- 연구위원회 4개
전기기기연구위원회(75년 5월 10일),
계측제어 및 시스템연구위원회(75년 6월 14일),
전력계통위원회(75년 11월 1일),
전기재료연구회(76년 10월 23일).

6. 학회 제4기(1977년~1986년)의 역사

제4기(1977년~1986년)는, 학회가 창립 30주년에서 40년으로 가는 시기이었고, 학회는 활동적인 장년의 범인담게 학회의 골격을 완성하여 가고 있었다. 1976년까지 설립된 학회지부는, 부산, 대전, 울산, 대구, 전남, 영동, 전북, 등 7개 지부이었고, 1977년이후 1986년까지 포항, 마산·창원, 충북지부가 창립되어 모두 10개의 학회 지부가 생겼다. 이로써 각 지역에서도 서울지역에 못지않은 학회 활동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학회는 이러한 토대위에서 나아가 다시 전기공학 전반의 세부 전문 분야를 가름하는 연구회의 조직을 갖추어 나갔다.

학회의 연구회는 제3기의 1976년까지 전기기기연구회(75.5), 계측제어 및 시스템연구회(제어계측시스템연구회로 개명)(75.6), 전력계통연구회(75.11), 전기재료연구회(76.10), 등 4개의 연구회가 설립되어 있었고, 제4기(1977년~1986년)사이에, 방전 및 고전압공학연구회(77.4), 전자계산기연구회(컴퓨터 및 인공지능연구회로 개명)(82.10), 공업교육연구회

(83.5), 전력전자연구회(83.11), 파동 및 양자전자연구회(83.12)가 설립되어, 모두 9개가 되었다.

학회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내실화도 이루졌는데, 제4기(1977년~1986년) 10년사이에, 학회 예산액 기준의 규모는 77년 예산 19,887,192원에서 86년 예산 149,710,000원, 즉, 대략 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7.5배의 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학회지의 발행도 1978년까지 일년에 6회 발행하던 것을, 79년에는 비약적으로 매달 1회씩 연12회 발행하게 되었고, 1982년 7월부터는 『전기학회지』와 『전기학회논문지』로 분리하여 달마다 발행하게 되었다. 1977년 무렵, 학회지에 게재되는 학술 연구 논문은 1년에 25편 내외이었으나, 학회지/논문지가 분리된 1982년에 52편의 연구 논문이, 1986년에는 72편이 게재되었다.

학회의 사회봉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50년대에는 처참한 전후 복구에 필요한 노력과 봉사가 필요하였고,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중화학”, “중전기”와 같은 목직한 구호와 목표설정에 걸맞는 전기공학과 전기기술의 봉사가 필요하였다.

제4기(1977년~1986년)에 학회가 가장 뚜렷이 기여하였다고 할 대표적인 보기는, 3백여 품목의 한국공업규격 전기부문(KSC 부문)의 제정에 연차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고, 산업용 가전전기기기, 가전제품 등의 형식 승인 심사, 전기기기 설계기준 작성 등등의 실적을 쌓았다. 또한 1983년에는 기존의 학회 연구회와 별도로 전기공업정책위원회와 같은 10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응용 봉사적인 기능을 강화하였다.

학회는 일찍부터 선진국의 학술, 기술의 도입에 노력하여 왔으며, 한동안 학회 또는 관련분야의 소수의 전문인들이 참가하였던, 전력계통 분야의 국제 조직인 CIGRE(세계 고전압 대전력계통 회의)에, 1979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학회의 국제교류는, 학회지의 교환, 학술대회 참가, 학술대회 국내유치와 같이 여러면으로 불수 있는데, 1985년에는 IEEE, CIGRE, WEC 등의 국제학술회에 학회 대표가 참가하였고, 일본, 중국 등과는 상호 초청방문의 협약을 맺어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1986학계 학술대회는 일본 등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제화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학회지의 문헌적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학회는 1983년도부터, 대학교서관, 연구기관, 정부조직 등을 단체회원(처음에는 특별회원이라 불려, 사업유지회원과 혼동되었음)으로 가입시켜, 학회지가 지속적으로 구독, 장서화되게 노력하였다.

1985년 12월 30일, 학회는 학회 사무실을 전기회관에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에 신축한 과학기술회관 505호로 이전하였다. 학회가 창설된지 20년만인 1976년 7월 22일에 전기인들이 모이는 전기회관에 입주하였고, 다시 19년만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단체가 모여 있는 과학기술회관으로 이전한 것이다.

학회 제4기(1977년~1986년) 1986년말 현재, 학회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86년말 학회 회원수

: 4,890명(일반회원 4,787, 특별회원 103).

—학회지부

: 부산지부(1963.12.7설립), 대전지부(1965.5.29), 울산지부(1968.8.3), 대구지부(1970.10.17), 전남지부(1970.11.7), 영동지부(1973.8.3), 전북지부(75.8.1), 포항지부(77.8.6), 서부경남지부(81.10.17), 충북지부(82.7.22), 모두 10개 지부.

—학회 연구회 9개

: 전기기기-연구회(75.5.10), 계측제어시스템-(75.6.14.), 전력계통-(75.11.1), 전기재료-(76.10.23), 방전및고전압공학-(77.4.16), 전자계산기-(82.10.30), 공업교육-(83.5.11), 전력전자-(83.11.26), 파동 및 양자전자-(83.12.10).

—1986년도 결산 수입 182,799,127원, 지출 182,195,986원 (예산 185,000,000원).

—학회지 12회 및 논문지 12회, 각각 28,950부 발간,

계재 연구논문 72편.

7. 학회 제5기(1987년~1996년)의 역사

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1987년은, 우리나라의 전기점등 100주년(1897.1.26)이 되는해이며, 정치적으로 민주화체제로 복귀하고, 국제적으로 강대국의 화해 분위기가 익어가는 때이기도 하였다. 90년대를 몇 년 앞두고 88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가 상징하듯이 국가의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의 분야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 변천하고 있었다.

1987년에 학회의 규모는 10개의 연구회, 예산규모가 2억을 넘게 성장하였고, 학회의 활동의 영역도 학제적/국제적 발전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학회와 국내 4개 학회가 연합하여 한국자동제어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이 학술회의에서 일본계측자동제어학회와 합동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학회 창립 40주년기념 학술회의에서는 모두 942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학술회의 참가 인원 3,860명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학회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88년에는 영문논문지(The Journal of the KIEE)가 연2회 발간되어 연구업적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갔다.

1989년에는, 8월 14일~18일의 한미공동세미나가 주제: “전문가 시스템의 전력계통 응용” 으로 21편의 학술발표 실적을 올렸다. 이 세미나는 한국과학재단과 미국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것이었다. 또한 IFAC 국제 심포지움(8월 22일~25일)에 21개국 365명이 참석, 주제: “전력계통과 발전소 제어”로 17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89년 7월 7일, 학회의 부상전철 전문위원회가, 닥쳐올 차세대의 교통수단인

자기 부상 열차의 핵심 기술을 조사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학회 지부 활동의 활성화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0개를 넘어선 국내 지부와 해외의 일본지부에서, 각각 매년 1회이상 학술 논문 발표회를 개최하여, 중앙집중적인 풍토를 지양하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단면을 보여주었다.

학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산학협동적인 활동이 꾸준히 성과를 올려, 1991년에는, 연구용역 2건, 경부고속전철의 신호설비 신뢰성향상 및 설계표준화, KS규격 11건의 제정, 실적을 올렸다. 1992년에는, 학회 기술조사전문위원회에서는 실용기술의 『조사보고서1호~6호』를 500부씩 발행하였는데, 1991/1992년에 설치된 기술조사전문위원회는 다음의 11개이었다.

고속전철기술-조사전문위원회, 초전도응용-, 소형전동기 기술-, 전자장수치해석-, 전력사업장기전망-, 전기자동차-, 고조파저감기술-, 리덕턴스 모터-, 전기환경-,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재료-, 신호설비 최적공정 특별전문위원회, 등등이었다. 이들 명칭은 이 시대 및 장래를 대비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하여, 학회가 하여야 할 책무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1993/1994년은, 학회의 활동과 성장이 두드러졌던 시기이었다. 학회 예산규모가 1987년에 비하여 8년만에 두배로 성장 4억원을 초과하였고, 10개의 연구회와 10개의 지부가 맡은 역할을 지속하였다. 학회의 성장에 따라 제도와 체제의 변화를 정관과 규칙 등의 개정으로 대응하여 왔는데, 1993년의 뚜렷한 변화는 “차기회장” 제도의 실시이었다. 이 제도는 학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반감하되, 임기 직전 1년동안에 학회장의 업무를 예비하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학회장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학회장의 학회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이었다.

1995년은, 하계학술대회와 더불어 ICEE '95 (국제전기공학학술회의), ICPE '95(국제전력전자 학술회의)의 국내 개최, 한국, 일본, 중국 전기학회 대표들의 상호 초청 및 방문협정으로 제도화되었다. 1995년 7월 7일, 학회 사무실이 과학기술회관에 입주한지 10년만에 신관(과학기술진흥센터)으로 확장, 이전하였는데, 회원, 특별회원,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협찬 덕분으로 이루어진 경사이었다.

학회 제5기(1987년~1996년)의 최종년도 1996년의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 회원 7천명, 연구회 13개, 학회 지부 13개,
- 일년예산 6억 초과,
- 학회지(12회) 43,600부 발행, 논문지(12회) 17,700부 발행, 논문지(12회 발행)
- 게재논문 258편, 2종류의 영문논문지(8회) 게재논문 52편,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1,491편(하계학술발표회 672편, 정기총회/학술발표회 논문 120편, 11개 연구회 발표 논문 653편, 국제학술회의 46편), 및 ICEE '96 북경대회 발표논문 46편, 등이다.

8. 맺음말

전기 사용 110년의 역사 가운데서, 대한전기학회의 50년은 1947년 7월 9일부터 1997년에 걸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의 첫 부분은, 국토의 분단, 전란과 혼돈에서 시작하여,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지향하며, 좌절과 자멸감을 던져버리고, 근면과 자긍심을 되찾으면서 쌓아온 것이다. 대한전기학회가 지향, 성취, 발전하여 갈 제2의 50년은 21세기의 처음 50년에 걸쳐 우리가 작성하여야 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저 자 소 개



이상효(李相孝)

1941년 5월 23일생. 1967년 수도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1년 연세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졸업 1980년, 광운대 전자공학과 조교수. 1983~84년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객원 연구원. 1997년 현재,

광운대 공대 제어계측공학과 교수